



후우...  
무지 피곤하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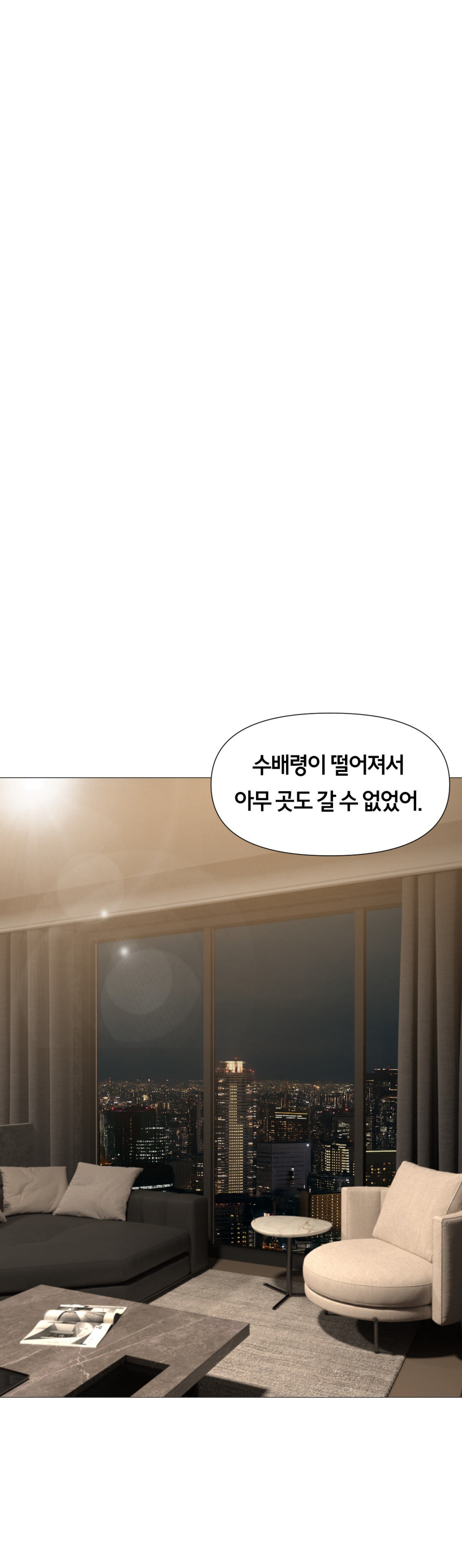
빨리 씻고  
자고 싶다아~


어...?



왜 창문이  
열려 있지?







네 집 앞에도 경찰들이  
순찰을 돌고 있었고.

놀라게 해서  
미안해.

괜찮아.

그건 그렇고,  
직장 사람들이 단체로  
미쳐버렸다 이거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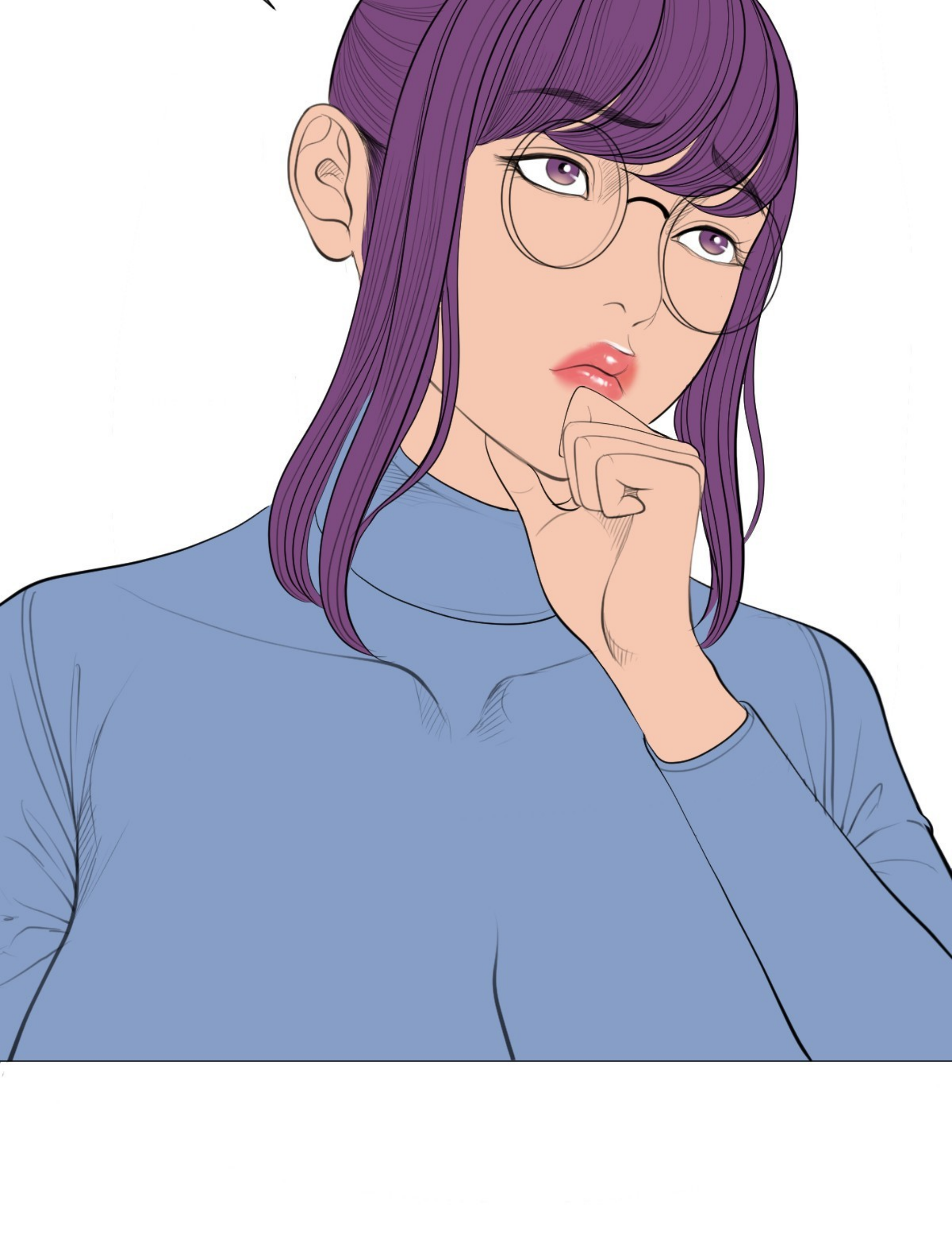
그래...

다들 서연이랑  
똑같은 눈을 하고  
있었어.

도대체...  
무슨 일이  
일어난 건지...

.....

하나 짚이는 게  
있긴 한데...



너 혹시...



사무실에서  
이거 본 적 있어?



!

아...  
그래, 기억난다!



출장 갔다 와보니  
책상마다 있었어!



근데,  
이게 어쨌다는 거야?